

JI-YOUNG LEE, *China's Hegemony: Four Hundred Years of East Asian Domination*의 Ch.3, "The making of Ming Hegemony"

- 1370년 고려가 원에 대한 조공관계를 끝내고 명의 조공국임을 선포함.
 - 고려가 명제국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 고려 왕조 붕괴의 사실상 결정적 원인이 됨: 고려 붕괴는 멸망은 명의 압도적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고려 부사령관 이성계의 국경에서의 회군 및 새로운 왕조 건국으로 인한 것임(1392). 이후 이성계는 명에 대해 요동지역 정벌을 위한 군사적 준비에 착수함.
- 일본의 요시미츠가 1403년 명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당신의 신하, 일본의 왕"이라고 표기함
 - 일본이 중국의 책봉을 받아들여 조공국(tributary)이 되어서 중국의 우월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임.
- 당시 한국과 일본이 명에 대해 보인 반응은 imperial China에 대한 일반적 대응 형태에서 벗어난 형태로써 변동적이며 특이함
 -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해 조공국의 지위를 받아들이며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결정을 하게된 배경에 고려와 조선의 국내정치적 고려사항이 작용함
 - 일본의 경우: 중국 헤게모니에 대한 대응은 일본의 국내정치적 맥락과 경제적 고려에 기반함
 - 3장의 주요 내용: 초기 명의 헤게모니적 질서 형성과정에서 내적인 권위와 정통성을 공고화하기 위해 한국과 조선이 관여한 역할에 주목함
 - : 당시 위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명에 순응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적 경쟁자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패권국(hegemon)으로서 명 제국의 상징적 힘을 이용하려한 결과임
 - 저자의 주장: 중국의 패권적 권위는 주변국가들의 국내정치적 정당화 전략의 산물임

1. 명 헤게모니와 강제력으로서 조공체제의 형성

- 기존 학계의 주장 : 명의 조공체제가 아시아의 오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
 - 야만적인 몽골을 대체하여 문명화된 漢 중국을 건설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명을 건국한 홍무제(1328~1398)는 악명높은 몽골식 풍습을 일부 채택함: 조공물로 많은 물자와 사람들을 요구함
 - 초기의 명은 주변국에 명의 이해관계를 받아들일도록 강제하기 위해 상품교환과 책봉의 조공 관습을 사용함.
- 명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는 패턴:2가지
 - (1) 양자간 관계에서 명 제국이 우월함(명의 헤게모니)을 상대국으로부터 인정받는 형태로 외교적 교류 과정을 거침 : 주변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이들 국가가 명 수도에 방문하도록 압박하는 외교적 접촉을 함
 - : 명이 1368년 고려에 첫 번째로 사신 파견함. 공민왕은 원에 대한 기존의 조공관계를 파기하고 명에 조공 사절단을 파견함.
 - : 무로마치시기가 일본이 통일된 이후 1401년 명에 조공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이에 명 사신이 답방함. 1401-1408년간 일본 쇼군은 명의 책봉을 받았으며, 자신을 '일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명 달력을 받아들였으며, 명에 조성사신을 파견함.

(2) 명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명 초기(14세기말)과 말기(16세기말, 17세기초) 매우 강제력을 행사하는 양상을 띠었다

: 명은 한국이 복원과 손잡고 명을 공격할 가능성을 두려워함.

: 홍무제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정책을 선포하였으나, 명이 만주(요동지역)에 대해 한국과 영토분쟁에 대한 대응 양상을 보면, 한국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공관례를 통해 강압적 외교(coercive diplomacy)를 전개함

□ 명이 (한국의) 순응(compliance)을 이끌어냈던 방식 :

○ 책봉의 관습을 이용하여 새로 등극한 한국 지도자에 대한 승인을 철회함

→ 이러한 명으로부터의 인정이 결여되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의 정통성이 붕괴되면서 국내정치적으로 부정적 함의를 갖게됨: 고려 우왕은 즉위후 10년만에 명의 책봉을 받았으며, 명이 조공품으로 요구한 많은 물품들을 보냄.

○ 새로운 왕조를 건국한 이성계는 몇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홍무제로부터 책봉을 받지 못함

- 홍무제는 책봉을 철회한 것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의 왕에게 공민왕의 죽음과 명 사신의 살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보낼 것을 요구함.

- 명은 과도한 조공을 요구하였으며, 고려 사신이 명 영토에 입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타켓국가들의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취하겠다는 위협과 회유적 제스처를 섞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명의 강압적 외교로 자주 볼 수 있는 양상임.

○ 명이 1401~1408년간 일본에 대한 대응: 유화적 제스처와 위협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대응과) 비슷한 형태로 전개됨

- 당시 중국 연안지역에 일본 해적(왜구)을 억제하는 문제가 이슈화됨

2. 명 제국에 대항하여 한국의 군대 파견(요동정벌)

○ 한국이 강대국 명 제국에 대해 1370년, 1388년 및 1398년에 공격적 정책을 취하게 만든 요인은?

- 한국에 대해 중국의 해계모니적 권위가 약화된 시기에 군사 행동을 시도함

- 제국주의적 명에 대해 한국이 영토 주권을 찾고 싶었음

- 저자: 한국의 국내적 여건과 한국내 경쟁적 그룹들에게 중국의 해계모니적 권위가 시사하는 것에 주목해야 함.

- 고려말과 조선초 시기에 새로운 정치질서를 건설하려는 한국의 시도, 이와 더불어 원으로부터 명으로의 세력균형의 이동이 겹침

□ 3차례의 요동 정벌(Liaodong Campaign)

1) 1370년 요동 정벌 시도

- 1368년 명의 건국은 새로운 대안적 질서의 가능성을 상징함: 한국이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남

- 공민왕의 개혁과 친원파(기 황후 등) 제거 시도

- 1370년의 요동정벌: 원과 고려의 평양간 연락사무소의 폐지.

- 이 때 명은 원이 고려에 대해 취했던 제국주의적 통제를 되풀이하지 않음

2) 1388년 요동 정벌

- 1388년 두 번째 요동정벌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가져오는 촉발요인이 됨

- 한국내 2개의 친명파(새로운 유교적 소양을 지닌 관료들과 이성계의 군사적 그룹)간 연합형성
- 저자의 관심: 1388년 고려가 명에 대해 군사행동을 감행한 배경으로서, 고려내 권력투쟁에서 국내정치세력이 명과 북원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용하였는가를 고려하여야 함.
- (김당택의 연구원용) 1388년 요동정벌은 최영과 우왕이 이성계와 그의 지지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것임.
- 1388년 요동정벌시기까지 고려가 명과 북원사이에서 조공국의 지위를 바뀌는 지그재그 형태의 대응 형태를 보임: 국내정치에서 이성계가 가담한 새로운 친명파와 기존의 강력한 친원파 그룹간의 세력 균형으로 인해 초래된 현상으로 파악해야함.
- 이시기 고려에서는 정치적으로 다른 그룹들이 자신의 주장들을 강화하기 위해 명 제국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시도함. 이색이 명에 사신 파견을 자처하였으며, 홍무제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색은 명이 고려의 국내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할 것을 요청함.
- 1392년 새로운 국가 건국이후 이성계는 조선과 자신이 새로운 지배자로서 명의 인정을 받을 필요성을 절감함.

3) 1398년 요동 정벌 준비

- 조선은 요동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이 명과 군사적 대결 상황을 초래함을 인지함
 - 군사훈련이 조선 정부의 정책으로 추구되고, 이성계도 이를 지지함.
 - 요동 정벌은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려는 고려왕조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음.
 - 명은 이러한 조선의 의도를 의심하여 1397년 조선 사신이 명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이성계에 대한 조선의 책봉 요구를 무시함.
 - 홍무제는 정도전이 요동정벌 준비를 책임지고 있다고 보아서 정도전을 명에 보낼 것을 요구함
 - 정도전은 기존의 다양한 사병들을 통합하였으며, 요동정벌을 위한 군사훈련이 새로운 국가에 필요한 군사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함.
- vs 조선내 다른 진영의 조준, 권근, 설창수 등 다른 그룹과 이방원이 이러한 정도전의 시도에 반대함으로써 요동정벌 준비는 중단되고 정도전은 살해됨.

3. 명 제국의 조공국(Tributary)으로서 일본

- o 명에 대한 일본의 유화적 태도는 이시기에 조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임.
 - 근세 일본역사에서 일본의 지배자가 자신을 “당신의 신화, 일본의 왕”이라고 부른 것도 예외적임.
 - 일본이 명의 책봉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중국 헤게모니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정의 전형적 형태에서 벗어난 것임 : 요시미츠의 후계자들도 이후 요시미츠처럼 조공관례를 따라하지 않음

□ 이시카와 요시미츠(足利義滿, 무로마치 바쿠후 3대 쇼군, 재위기간 1368~1394년) 치하의 일본의 외교적 행위에 대한 설명

- i) 요시미츠의 행위가 동아시아 외교의전을 몰라서 했다는 해석
 - 반론: 당시 일본 지배엘리트들은 고대 중국의 세계관이나 외교적 의식을 잘 알고 있었음
- ii) 요시미츠는 공식적 조공관계가 가져다 주는 무역이익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도 사치성 물품 구매함.
 - 상업적 이윤에 대한 요시미츠의 관심이 명과의 공식적 관계 개설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 그 결과 1401년 무로마치 일본과 명간에 상업적 협정이 체결됨. 1408년 죽기전까지 무로마치는 매년 중국에 무역선 사절단을 보냄.
- iii) 당시 국내정치적 상황 요인으로서, 요시미츠는 자신의 쇼군으로서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대외정책을 이용함. 그는 국내정치적 경쟁자들, 소고(守護) 다이묘(지역봉건영주)들에 대해 국내적 권위를 공고화할 과제에 직면함.

- 요시미츠가 아시아의 국제관계라는 위계하에서 중국 황제 밑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중국식 직책을 받아들임으로써, 쇼군으로서 천황이 아니라, 바깥세계에 대한 존경과 함께 새로운 Japanese nationhood를 형성함. '일본의 왕'이라는 칭호를 수락함으로써 요시미츠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대표가 되었으며, 쇼군의 권위를 확대해감. → 일본 천황의 정부가 아닌 쇼군이 일본 외교정책을 담당함을 시사함.
- 요시미츠 지배시기는 일본이 천황의 지배로부터 무사의 지배(warrior rule)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요시미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본 천황에 대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됨

□ 새로운 무로마치 질서의 형성

- 초기 무로마치 바쿠후의 지배자들은 정치적 경쟁자로서 일본 천황과 소고라는 지방의 군사지배자들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함.
 - 무로마치 3대 쇼군인 요시미치는 즉위후 아직 내전 상황하에서 천황의 궁정이 북조와 남조로 분열된 상황이었음.
 - 요시미츠의 경쟁자인 남조(북규수지방에 있는 the Southern Court)가 외부 세계에 중국이 보기에 일본의 지배자였음.
 - 1335년 이사카와 타카우지가 당시 천황을 내세우는 무사들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 처함. 요시미츠가 1368년 즉위한 이후, 명 홍무제가 1369년 남조의 천황에 사절단을 파견함.
 - 일본의 외교관계가 요시미츠의 경쟁자의 수중에 있는 상황에서, 요시미츠는 내전을 종식하면서 일본 국내정치의 전환기에 정통성과 권위의 원천으로서 천황에 기대는 전통적 방법 대신에 중국 명 황제에 기대는 방식으로 바꿈.

4. 결론

- 중국 해계모니에 대해 일본의 저항과 한국의 순응이라는 예외적 형태에 대한 설명 시도
 - 1370년 한국은 명의 조공국이 됨으로써 명에 bandwagon하는 양상 보임
 - 곧 한국의 태도가 흔들려서 순응(1370년)으로부터 실패한 도전(1388년)으로, 다시 순응으로의 복귀(1392년), 그리고 요동정벌이라는 도전의 재시도(1398년)의 변화상을 보임.
 - 일본의 대응도 기존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남.
 - : 일본이 공식적으로 명의 조공국이 됨(일본 근세사에서 1회성의 사건). 이것은 요시미츠가 '일본의 왕'이라는 책봉을 받아들였으며, 중국 황제의 신하라고 부름. 이러한 일본의 순응이 무로마치 전시기에 걸쳐 일본의 물리적 힘이 가장 강한 시기에 행해진 것이 놀라움.
 - : 합리적 관점에서 보면, 요시미츠는 공식적 조공이 제공하는 무역상 이윤에 큰 관심 보임.
- 저자의 주장
 -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순응 결정은 명의 힘을 두려워하기 따르기보다는 주로 각기 국내정치적 고려사항의 결과물임.
 -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조공체제가 항상 평화와 연계된 것은 아님.
 - : 명에 대한 한국의 행위로 볼 때, 하나의 조공 국가가 된다는 것이 패권국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오히려 고려와 조선이 명의 통제에 대항하여 정치적 독립과 자율을 확대하고 보존하기 위해 조공관례를 활용함.